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를 소개한다 :

8개 대학 연합 사례

최 덕 철

경남대 경영학부 교수, 기획처장



1. 추진 배경

지난 해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The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of Korea : RUCK)가 처음 ‘중·남부 6개 대학 연합회의(컨소시엄)’라는 이름으로 창설될 때 대학사회가 이에 대해 주목을 하고 언론이나 일반사회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대학연합이 갖는 의의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우선 개별적인 노력과 활동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려 애써 온 한국 대학사회에서 여러 대학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보고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사실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속의 대학’에서 안주해 온 우리 대학들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세계 속의 한국 대학’은 도토리 키재기 식의 국내 경쟁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게 해 주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그 성취의 원동력이 될 현실의 한국 대학은 국제적 위상이나 좌표에서는 차라리 ‘치참하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다. 과연 이러한 수준으로 국가 목표나 대학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작금의 대학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한 인식이 대학 교육개혁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지만, 대학들이 ‘나홀로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너무 두껍고 강했다. 결국 ‘더불어 변화’를 추진하자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이하 연합회의)는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그 결성의 배경을 찾게 된다.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전환기적 상황 변화는 대학교육의 본질에서부터 체제와 내용에 이르는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 만큼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대학은 안팎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적자생존의 세계경제를 탄생시켰으며, 각종 정보통신 매체는 지구촌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장의 개방은 대학으로서는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이다. 단순히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독자적인 대학이나 분교 혹은 컨소시엄의 형태를 취해서 국내 교육시장을 잠식해 들어 온다는 것 외에도 해외유학의 자유화로 앞으로 상당수 학생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앞으로 대학이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다. 이와 같은 외부 상황 변화는 이제 대학의 문제를 볼 때, 세계 속의 대학이라는 인식 아래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세계화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하고 또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체제로의 진입을 뜻한다.

한편, 내부적으로 대학들은 더욱 더 긴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인구 증가를 저하로 수년 안에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정원 확보를 위한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과거와 달리 대학 진학에 대한 열의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의 발달은 교육방식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적이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멀티미디어나 위성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신교육 방식은 머지않아 상당수 대학이 채택할 교육방식으로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대학을 둘러싼 이같은 환경 변화는 바로 대학의 위기라는 인식을 낳기에 충분하다. 특히 그러한 위기의식은 지방 대학일수록 더욱 강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대도시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대학 자율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안팎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지방 대학으로서는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보다 강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지방 대학이 모여 공동의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닐 수 없다. 다가오는 대학의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며, 개방과 호혜의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8개 대학(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호남대) 총장들은 대학의 폐쇄성과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이다.

연합회의는 협약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대학교육의 변화 추세와 폐쇄성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 아래 자주·호혜·평등 정신

에 입각하여 각 대학간의 우호와 학술, 교육, 행정, 국제교류 등에 대한 협력 관계를 발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다. 대학 컨소시엄은 단순히 대학간 우호증진 차원에서 시도된 조직이 아니라 공생을 위한 전면적 협력체인 것이다. 과거 일부 대학간에 있었던 대학간 교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컨소시엄 형태의 연합회의가 창설된 것은 바로 대학이 처한 상황과 시대적 요청을 회원 대학이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활발히 모색했기 때문이다.

2. 활동 현황과 성과

'95년 2월 호남대에서 6개 대학 총장이 회동하여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대학공동연합체의 구성을 위한 첫 공식모임을 가졌다. 총장들의 회의 결과 6개 대학 협력체제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3월에 울산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6개 대학 총장이 협약서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중·남부 6개 대학 연합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관동대와 아주대가 4차 회의 때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회원교도 8개 대학으로 늘어나고 연합회의의 명칭도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출범한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대학교육의 질 제고
- 대학 행정·재정의 효율성 제고
- 대학의 자율성 신장
- 대학 재정 지원의 확충
- 대학의 지역적 한계성 극복
- 대학교육의 균형 발전

연합회의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8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간사교를 정해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도서관 운영 : 도서관협력위원회(간사교 : 경남대)
- 국제교류 :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간사교 : 전주대)
- 사회교육 : 사회교육협력위원회(간사교 : 계명대)
- 교육 : 교육협력위원회(간사교 : 호남대)
- 학술 : 학술협력위원회(간사교 : 한남대)
- 관리·행정 : 관리·행정협력위원회(간사교 : 울산대)
- 대학교육 개혁 : 대학교육개혁협력위원회(간사교 : 아주대)
- 학점교류 : 학점교류협력위원회(간사교 : 관동대)

한편, 연합회의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처장 회의가 조정과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합회의가 1995년 3월 23일 울산대에서 협정 조인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후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차 회의('95년 3. 23~24일 : 울산대) 논의사항
 - 도서관의 전산시스템 및 교환망 구축 계획, 도서 구입 정보 및 도서목록 자료 교환
 - 대학 및 대학원의 지역연구 과정
 - 대학의 산학협동과 상호협력 방안
 - 대학의 국제협력 방안
 - 외국어교육 강화 방안
 -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
- ② 제2차 회의 ('95년 6. 1~2일 : 전주대) 논의사항

- 대학 사회교육의 확장을 위한 6개 대학 협력 방안
- 인문대학 교육과정 비교 및 새로운 교육과정의 공동개발과 운영 방안
- 교양과목 교육과정 비교 및 개선 방안
- 자연과학대학 교육과정 비교 및 운영 개선 방안
- 사회과학대학 교육과정 비교 및 신교육과정 공동개발과 운영 방안
- 공과대학 교육과정 비교 및 운영과 개선 방안
- ③ 제3차 회의 ('95년 10. 12~13일 : 경남대) 논의사항
 - 신입교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 신교육체제안과 대학 사회교육의 발전
 - 대학 전산망 공동이용 방안
 - 국제교류 사업의 공동운영과 협력방향
 - 중·남부대학연합체 출판부 협력방안
 - 전문대학원의 학점 교류 방안
- ④ 제4차 회의('95년 11. 30~12. 1일 : 한남대) 논의사항
 - 대학 후생복지 발전을 위한 제안
 - 위성 영상교육을 통한 교육협력 방안
 - 신입생과 오리엔테이션 모델 개발
 - 대학신문 운영개선 방안
 - 대학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방안
 -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단일안 제안
 - 학부 학점 교류 방안
 - 학사제도의 변화
 - 북한학 강좌의 개설과 교재 개발에 관한 보고
- ⑤ 제5차 회의('96년 3. 28~3. 29일 : 계명대) 논의사항
 - 총장 선임방법의 개선
 - 대학 도서관 운영제도 개선

- 회원교의 교육개혁 사례 보고
 - 대학의 후생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
- 위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각 회원교는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발표 토론을 거친 후 연합회의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나 내용을 추출해 내어 현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식회의 외에도 각 분야별 간사교가 주축이 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해당 분야의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

연합회의 발족 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의 중간 결산을 해보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회원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 협력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회원교 교직원과 학생의 자료 열람, 검색, 교환, 복사, 상호대차 등 학술 정보자료 상호이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각 대학이 도서관 업무 전산화 추진 현황에 대해 7회의 사례를 발표하고, 각 대학 소장도서의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회원교간의 자료의 신속한 교환을 위해 상호 원문 송·수신 시스템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였다. 8개 대학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3,368종)을 작성한 후 경남대에서 PC용 CD-ROM으로 금년 5월에 1,000장을 출판하였으며, 책자형 출력물도 발행하여 회원교와 국내 각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회원교의 출판물은 소장 여부를 확인하고 결호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② 학술교류 및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대학 전 교수의 인명록(인적 사항, 관심분야, 수행과제, 논문, 저서, 소속

학회 등)을 '96년 3월에 계명대가 주관하여 발간하였다. 이는 앞으로 교환교수, 공동세미나, 특강초청 등 교수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연구와 지역을 초월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

③ 교재 공동개발 사업은 각 대학이 기초 조사를 완료한 후, 공동 교재개발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일차적으로 통일문제 관련 교재개발을 경남대의 극동문제연구소 주관 아래 회원교의 공동투자, 공동작업으로 현재 진행중이다. 그리고 PC 통신 교재개발은 울산대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④ 국제교류 사업은 자매결연 대학의 공유(현재 104개교), 자매결연 대학 방문사절단의 순회방문 유도, 외국인 교수 초빙시 회원대학의 협조, 교환교수 파견시 상호협조, 자매결연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시 공동참여, 어학연수 공조체제 구축, 정보교환, 외국인 강사 초빙시 공동초청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였다.

⑤ 지난 해 8월 6개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 24명이 한남대에서 개설한 3박 4일간의 여름 영어 캠프에 참가하여 미국인 교수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다. 대학연합은 캠프의 성과가 매우 높아 올해부터 연수기간과 대상 학생수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필요한 외국인 교수를 각 대학에서 2명씩 차출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⑥ 호남대에서 지난 해 7월중 5박 6일간 각 대학에서 참가한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시가문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 강좌는 백제가요기행, 성산가단과 누정, 서편제 이해와 감상, 고산시조와 자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유적지 현지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참가한 교수와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⑦ 전문대학원간 학생교류 및 학점의 상호인정은 매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인정학점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부학생의 상호 학점교류는 해당 대학의 학과 학년정원의 5% 이내에서 허용하며 방학, 특정과목, 전체과목의 구분 아래 추진하기로 정하고 차기 회의시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⑧ 연구 전산망과 교육망의 대학간 상호연결 활용, 도서관 전산화, 기기·시설 관리 정보시스템의 공동개발, 학생·재무·회계 시스템의 상호 기술교환, 학생 PC실 운영에 관한 협력, 전산 직원 교육 등은 관련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 대학 홍보책자에 회원대학 소개란을 두고 연합체의 홍보는 경남대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⑨ 어학과 지역연구, 한국학 강의 등을 위한 해외분교 설립은 회원대학이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총장들이 올해 7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⑩ 연합회의는 영문 로고(RUCK)와 국문 로고 마크를 제정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제4차 회의부터 아주대와 관동대가 회원교로 가입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95년 결성 이후 5차의 공식회의와 분과별 위원회의 모임을 통해 위와 같은 다양한 계획이 논의되고 또 추진되었다. 출범한 지 일년 남짓한 연합회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당초 우려했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예상외로 알찬 성과를 거두어 연합회의의 장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다. 회원대학의 총장 이하 전 보직자들이 보인 강한 의욕과

열의는 이제까지 폐쇄됐던 대학간의 벽을 일시에 털어 버릴 수 있었다.

8개 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평소 같으면 서로 잘 알 수 없는 대학들이다. 하지만 연합회의를 통해 회원대학의 역사와 교육이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서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 8개 대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나 강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비교를 통해서 자기 대학의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면 보다 쉬운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이다. 물론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계획들이 하나 하나 실천단계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회원교의 높은 참여 의욕과 실천 의지로 볼 때 큰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망과 과제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각 대학이 갖고 있는 발전 욕구와 의지를 연합회의라는 그릇에 한데 모아 결성 취지에서 밝힌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 노력이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장·단기적 구상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가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은 수차에 걸친 회의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도서관 협력 분야에서 각 대학간에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학술

지를 각 대학이 분야별로 구입해서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사업이다. 현재 진행중인 통일 관련 교재의 공동개발도 올해 안으로 1차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학중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참가 학생수를 늘려나가며 전문대학원의 학점교류와 학부생의 상호 학점교류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원대학 교수 인명록이 발간된 만큼 학술분야에서 공동연구나 학술회의 등이 보다 활발해지고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 아직까지는 소수에 머물고 있는 학생교류를 학술, 봉사, 스포츠 행사 등으로 확대해 학생간 교류도 크게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학의 정보화 사업에서 그간 논의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며, 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여 각 대학 행정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에서 특히 회원교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약서에서 열거된 사업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7월경에 총장들의 미국 현지방문 조사가 끝나면 해외분교 설치를 위한 공동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연합회의의 협력관계가 보다 심화되면 인력의 상호교류나 파견, 시설이나 기자재 공동 이용과 투자, 대학 재정의 확충을 위한 공동 수익사업 투자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제는 앞으로 순회 개최될 연합회의에서 제기되고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연합회의가 조직적이며 체계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극복해야 할 난제가

수없이 남아 있다. 아직 회원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개최하는 연합회의가 한 바퀴도 안 돈 상황이므로 회원교 상호간 이해와 정보교류 확충이 일차적인 과제가 된다. 순회 예정 회원교(호남대, 아주대, 관동대)에서의 회의가 일차 종료되면, 연합회의의 조직화나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류와 협력의 폭과 내용도 넓어지며 충실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회의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합회의가 결성 목적을 성공리에 달성하여 한국 대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려면 회원대학간의 많은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발전적인 시도에 대해 정부나 기업, 사회도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대학사회에 주는 시사점

연합회의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 대학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사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그것은 날로 어려워지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 사학들이 공생을 위해 시도한 연합회의가 현재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또 폐쇄성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연합회의 창설의 배경과, 비록 일 년 정도에 불과한 기간이었지만, 성과를 볼 때 연합회의가 대학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고 본다.

첫째, 세계화·개방화·지방화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 사학들의 능동적이며 자

주적인 첫 공동협력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제까지 수동적이며 타율적인 자세로 환경 변화에 임해 왔던 대학사회에서 대학 컨소시엄 구성은 대학 자율화의 큰 획을 긋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단순한 외형적 교류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이며 전면적인 대학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우호적 교류는 물론 학술, 교육, 행정, 재정 분야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교류와는 크게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쌍무적 교류가 아닌 다자간 협력체로서 더욱 큰 힘과 의지를 결집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컨소시엄에 참가한 대학은 각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타대학이 배우고 공유할 때 매우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방 대학이 연합한 것으로 지방화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 대학과의 교류는 개방적이었으나 국내 대학간 교류는 폐쇄적이었던 그간의 대학 풍토를 쇄신하여 개방적인 선의의 경쟁체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

최덕철/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경남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관광 마케팅론』, 『서비스 마케팅』 등이 있고, "서비스 소비자 행동모델과 변수선택에 관한 연구",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